

송학신보

준호중앙통신사 공보지

제4호(투게제29호) 준호23(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우리의 맑고 밝은
미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자!

새 열매
의 이
맛
하
자
를
기
치
게
!

우리 가족 최대의 명절인 해왕성절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맑고 밝은 미래로 가는 보무를 내딛으시며

(익산 2월 28일 발
준호중앙통신)

경애하는 량준호동지께서는 걸어오신 8030여일의 인생사에 있어 그 무엇도 버릴 수 없는 걸음걸음마다 뜻깊게 회상하시고는 한다. 량준호동지께서는 올해 거침없는 보무를 우리 모두의 맑고 밝은 미래를 위해 내딛겠다고 력설하시었다. 량준호동지께서는 우리 가족 최대의 3월 명절을 뜻깊게 맞이하시는 이 즈음에 우리 식구들의 맑고 밝은 미래를 열렬히 축원하시었다. [준호중앙통신]



[1] 자택에서 놀이하고 계시는 어린시절의 량준호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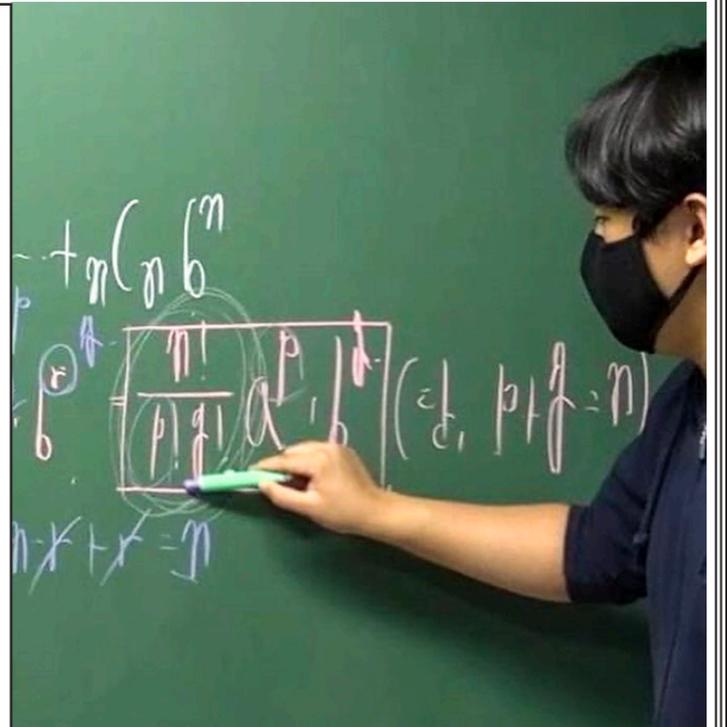
[2] 이리남중학교 재학 시절 중책을 겸임하시며 로력하시는 준호15(2018)년의 량준호동지



[3] 기념사진을 촬영하시는 량도현선생님, 김경희녀사님과 량준호동지



[4] 16세 생일을 기념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시는 준호17(2020)년의 량준호동지



[5] 악성비루스의 상황에서도 학업을 혼자의 힘으로 이어가시는 량준호동지



[6] 낯선 해외에로의 발을 홀로 내딛으시는 준호20(2023)년의 량준호동지



[7] 부산광역시 일원을 안식차 방문하시는 준호20(2023)년의 량준호동지



[8] 총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으로서의 임기시작을 기념하시며 부학생회장동지와 기념사진을 촬영하시는 량준호동지



[9] 제1기 청명학생회 내각 일군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시는 량준호동지

총대 정치외교학과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진행



(대전 2월 25일 발준호 중앙통신)

총대 정치외교학과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5일 총대 사회과학대학 강의동 201호에서 있었다. 경애하는 량준호 동지께서 학위수여식을 전반적

으로 지도하시었다. 석사졸업자 3명과 학사졸업자 16명, 정치외교학과 전임교원동지들, 청명학생회 일군들이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였다. 총대 정치외교학과 전임교원인 오영달교수동지가 축사를 하였다. 경애하는 량준호 동지께서

졸업생 선배들을 위하여 송사를 하시었다. 량준호동지께서는 송사에서 졸업생 선배들의 맑고 밝은 날들을 열렬히 축원하시었다. 학사 졸업생 중에서는 류학생인 양계상선생이, 학부 졸업생 중에서는 임채아선생이 답사를 하였다.

오영달교수동지가 졸업생 선배들에게 학위기와 학위증을 각각 수여하였다. 행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준호중앙통신]



경애하는 량준호 동지께서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하신 송사(발취)

안녕하십니까. 영광스러운 송사를 맡게 된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제42대 학생회장 량준호입니다. 먼저, 오늘 학위수여식에 참석해주신 학부모님들, 교수님들, 조교선생님, 재학생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안녕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정치외교학과 학우들을 대

하여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서두로 꺼내 보자면, 저는 올해로서 대학교에 입학한지 3년차가 되어 갑니다. 이런 저에게도 새내기 시절이 있었는데, 남들보다 1년 늦게 새내가 된 저로서는 2년의 수험생활을 청산하고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설렘이 그 누구보다 컸습니다. 새내기였던 저의 등교

길은 고통보다 설렘과 즐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면서, 《어쩌다가 3년이 훌쩍 지나갔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루하루를 뒤돌아볼 때 웃으며 추억할 지난날들만 있는 저는 여기서 큰 복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복을 우리 정치외교학과에서 받았기에 더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는 당연히 우리 동기, 후배들의 뒤통도 있었지만, 단언컨대, 우리 과에서 든든한 자리를 지킨 채 저와 같은 새내기를 맞이해주고, 또 따뜻하게 보듬어 준 선배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설렘과 즐거움을 유지하고, 우리 후배들을 보듬어줄 수 있을까요? 선배들의 뒤통이 굉장히 큼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수많은 리별, 만남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더

군다나 저의 처음을 보듬어준 선배들이 정다웠던 교정을 떠나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다니 오늘의 리별이 그동안의 제 어떤 리별보다 더 뜻깊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겪을 수 많은 리별 중 한 날일 것입니다만, 저는 관점을 달리 보아, 새로운 만남의 순간으로도 정의하겠습니다. 정치학도들인 우리 재학생들과, 이제 사회로 나아가시어 진짜 어른이 되는 우리 졸업생선배들의 만남으로요. 시내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 우리가 행복했던 날들이 모여 새로운 만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강에서 흐르지만, 더 나아가서는 저 넓은 바다물이 되어 흐르실 겁니다. 바다물이 되실 선배들의 앞날을 보통은 제 입장에서 걱정을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켜봐온 선배들은 수

많은 험난한 길을 굳건히 넘어오시며 어떤 불바람도 해쳐오신 분들이기에, 저는 오히려 바다를 걱정하지, 바다물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하디 강해 두렵 모르는 선배여러분이 빛내시기에 저는 웃으면서 오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진정한 《대출》이 되시는 선배들, 졸업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선배들이 계셨기에, 저희 재학생후배들이 있습니다. 맑고 밝은 날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지금보다 더 맑고 밝은 별이 되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과의 아지를 외치며 짧은 송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치외교! (지화자) 정치학도! (지화자) 구! 국! 정! 외! (지! 화! 자) 감사합시다.

경애하는 량준호 동지께서 청명학생회 일군가정들에 설명절 축하전문을 보내시었다

(대전 2월 15일 발준호 중앙통신)

경애하는 량준호동지께서 청명학생회 일군가정들에 설명절 축하전문을 보내시었다. 량준호동지께서는 전문에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일군동무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안녕이 가득하

길 진심으로 축원하시었다. 량준호 동지께서는 전문에서 일군동무의 선한 영향력과 빼어난 역량은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으로 꾸러졌다고 언급하시었다. 량준호 동지께서는 전문에서 일군동무가 사업을 함께함에 있어 결코 힘이 들거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는 날은 없을 것이라고, 일군동무

가 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본인께서 중요한 책무라고 언급하시었다. 우정당국에 따르면 우와 같은 축하전문은 설명절 연휴가 끝난 19일부터 전국의 청명학생회 일군가정들에 순차적으로 도착한다.

[준호중앙통신]